



보도	2023.7.28.(금) 조간	배포	2023.7.27.(목)		
담당부서	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김재갑	(02-3145-8050)
		담당자	선 임	김민호	(02-3145-8052)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1. 개 요

- '23.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6%p 상승]

* 5월중 원화대출 연체율 변동폭 추이(전월말 대비) :

('20.5월) +0.02%p → ('21.5월) +0.02%p → ('22.5월) +0.01%p → ('23.5월) +0.0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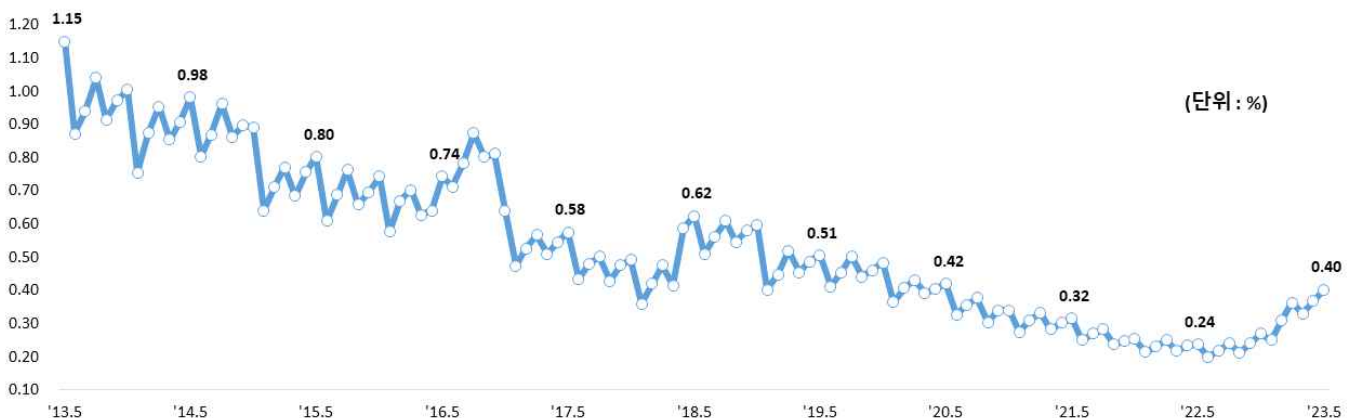
- '23.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1조원)은 전월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

	('21.5월)	('22.5월)	('22.12월)	('23.1월)	('23.2월)	('23.3월)	('23.4월)	('23.5월)
*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 :	1.0	1.0	1.6	1.9	1.9	1.7	1.8	2.1
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 :	0.7	0.9	1.9	0.6	0.8	2.4	0.9	1.3
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 :	0.3	0.1	△0.3	1.3	1.1	△0.7	0.9	0.8

- '23.5월중 신규연체율('23.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3.4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08%)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0.05%) 대비 0.05%p 상승]

* 신규연체율(%) : ('22.5) 0.05 → ('23.1) 0.09 → ('23.2) 0.09 → ('23.3) 0.08 → ('23.4) 0.08 → ('23.5) 0.10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2. 부문별 현황

- (기업대출) '23.5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43%)은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7%) 대비 0.16%p 상승]
- 대기기업대출 연체율(0.12%)은 전월말(0.09%)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18%) 대비 0.06%p 하락]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1%)은 전월말(0.46%) 대비 0.05%p 상승 [전년 동월말(0.29%) 대비 0.22%p 상승]
 - 중소기업인 연체율(0.55%)은 전월말(0.51%)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37%) 대비 0.18%p 상승]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45%)은 전월말(0.41%)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0%) 대비 0.25%p 상승]
- (가계대출) 가계대출 연체율(0.37%)은 전월말(0.34%)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19%) 대비 0.18%p 상승]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3%)은 전월말(0.21%) 대비 0.02%p 상승 [전년 동월말(0.11%) 대비 0.12%p 상승]
 -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5%)은 전월말(0.67%) 대비 0.08%p 상승 [전년 동월말(0.38%) 대비 0.37%p 상승]

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연체율 시계열 ('13.5월~'23.5월)	'20.5월	'21.5월	'22.5월 (A)	'23.4월 (B)	'23.5월 (C)	증감	
							전년동월 (C-A)	전월 (C-B)
기업대출		0.52	0.41	0.27	0.39	0.43	0.16	0.04
대기업		0.24	0.38	0.18	0.09	0.12	△0.06	0.03
중소기업		0.59	0.42	0.29	0.46	0.51	0.22	0.05
중소법인		0.77	0.57	0.37	0.51	0.55	0.18	0.04
개인사업자		0.37	0.25	0.20	0.41	0.45	0.25	0.04
가계대출		0.30	0.20	0.19	0.34	0.37	0.18	0.03
주택담보대출		0.20	0.12	0.11	0.21	0.23	0.12	0.02
가계신용대출등		0.53	0.37	0.38	0.67	0.75	0.37	0.08
원화대출계		0.42	0.32	0.24	0.37	0.40	0.16	0.03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국내은행의 '23.5월말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3%p 상승하는 등 '22.하반기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

* 연체율(%) : ('22.12) 0.25 → ('23.1) 0.31 → ('23.2) 0.36 → ('23.3) 0.33 → ('23.4) 0.37 → ('23.5) 0.40
(전월比 +0.06) (+0.05) (△0.03) (+0.04) (+0.03)

※ 상·매각이 분기말에 집중되면서 통상 분기말 연체율이 분기중 대비 하락하는 경향이 보이며, 은행권이 최근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정리를 확대함에 따라 2분기말(6월말)은 1분기말(3월말, 전월比 △0.03%p) 대비 연체율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은행권의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별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 건전성 취약 우려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신용위험 관리를 적극 지도할 예정